

새로운 QT

2024.06

거룩한 돌파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누가복음]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교회의 본질 속에 내재된 선교적 DNA



예수님께서서는 마 16:19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천국의 문을 열어서 땅과 연결시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포탈(Portal)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그 대상이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으로 확대될 때 보통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전도자”요 “선교사”인 것이며,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은 선교지입니다. 전도나 선교는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모든 지상 교회가 태어날 때는 그 안에 성령께서 심어 놓으신 선교적 DNA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어성경에 보면 “the gates of hell will not prevail against 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옥의 문이 교회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군대가 성을 공격할 때 성문을 먼저 부수습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쪽에서는 최대한 성문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옥의 문이 교회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가 공격하는 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지옥의 문을 부수는 공격하는 군대이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모든 지상 교회에서 주신 지상명령은 “세상 속으로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교회가 세상에서 간신히 살아남기에 급급하지 말고, 처음부터 세상 한가운데로 복음을 들고 가라는 공격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천국의 화력을 무제한 지원해 줄 테니 공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살아남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숨 걸고 막강한 로마 제국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가 선교하고 곳곳에 교회 세웠습니다. 그래서 불과 3백 년 만에 대제국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BBC 채널에서 네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소개한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힌두교가 주 종교였던 네팔에서 거대한 산불 같은 엄청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주역이 바로 한국인 선교사들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에 왕정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자, 가장 뜨겁게 부흥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 뒤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가 됐는데, 나라의 정치 문화 체제 전체가 흔들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다 치유를 받고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인터뷰에 나온 네팔의 한 고위 정치 관료는 기독교의 부흥이 너무 빨라서 네팔인들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두려움을 표시했습니다.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바로 저런 것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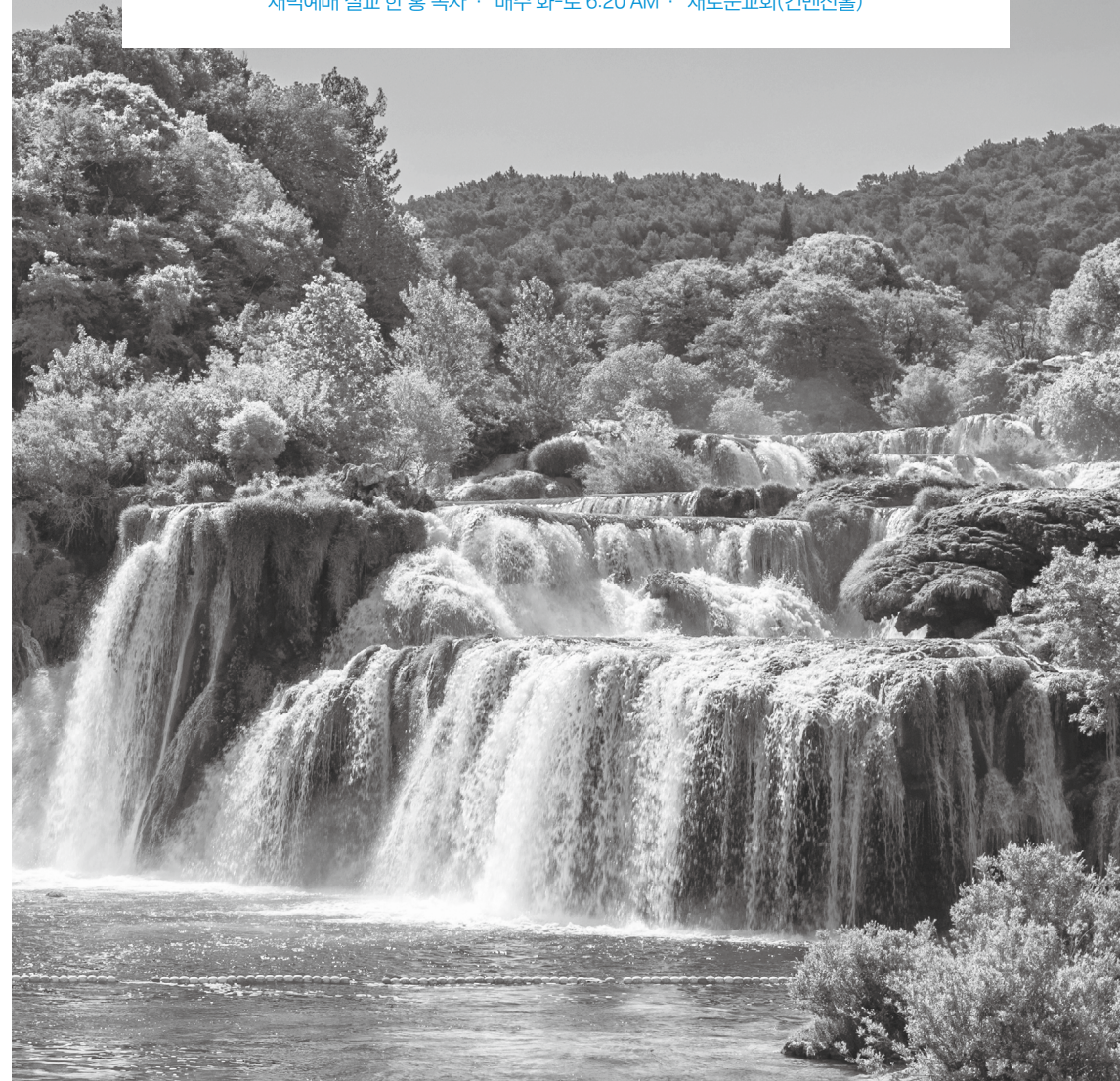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들 하는데, 교회 안에 내재된 선교적 DNA, 그걸 제대로 다시 살려놓기만 하면 교회는 다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한홍**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누가복음]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2024.
06

SAEROUN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6	27	28	29
2 새가족 122기 1주차 교육시작	3	4	5
9 세례식	10	11	12 수요 커피브레이크 개강
16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	17	18	19
23 30	24	25	26

QT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0	31	1
6 현충일	7 여름말씀부흥집회	8
13	14	15
20	21	22
27	28	29 남성사역 러브미니스트리 데이 영아부 성경학교

05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07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4. 06

1	토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눅 18:31-34
2	주일	여기가 좋사오니	눅 9:28-36
3	월	여호와와의 영광이 머무르다	출 24:15-18
4	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눅 18:35-43
5	수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눅 19:1-10
6	목	[현충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2-18
7	금	열 므나의 비유	눅 19:11-19
8	토	주인에 대한 오해	눅 19:20-27
9	주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요 13:1-17
10	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벧전 2:21-25
11	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눅 19:28-34
12	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눅 19:35-40
13	목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	눅 19:41-44
14	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눅 19:45-48
15	토	예수님의 권위	눅 20:1-8
16	주일	나는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 26:31-46 & 마 26:57-75
17	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요 21:7-13
18	화	포도원 농부의 비유	눅 20:9-19
19	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	눅 20:20-26
20	목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눅 20:27-40
21	금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눅 20:41-47
22	토	가난한 과부의 헌금	눅 21:1-4
23	주일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눅 22:44-53
24	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요 10:14-18
25	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눅 21:5-9
26	수	환난의 징조	눅 21:10-19
27	목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눅 21:20-28
28	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눅 21:29-33
29	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눅 21:34-38
30	주일	세 번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눅 22:54-62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훈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01

토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눅 18:31-34

3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Jesus took the Twelve aside and told them,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and everything that is written by the prophets about the Son of Man will be fulfilled.

32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He will be handed over to the Gentiles. They will mock him, insult him, spit on him, flog him and kill him.

33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On the third day he will rise again.'

34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취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The disciples did not understand any of this. Its meaning was hidden from them, and they did not know what he was talking about.

... 묵상(MFF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2

주일

여기가 종사오니

눅 9:28-36

28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About eight days after Jesus said this, he took Peter, John and James with him and went up onto a mountain to pray.

29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As he was praying, the appearance of his face changed, and his clothes became as bright as a flash of lightning.

30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Two men, Moses and Elijah,

31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appeared in glorious splendor, talking with Jesus. They spoke about his departure, which he was about to bring to fulfillment at Jerusalem.

32 베드로와 밋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밋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Peter and his companions were very sleepy, but when they became fully awake, they saw his glory and the two men standing with him.

33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종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As the men were leaving Jesus, Peter said to him, "Master,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Let us put up three shelters-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He did not know what he was saying.)

34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While he was speaking, a cloud appeared and covered them, and they were afraid as they entered the cloud.

35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A voice came from the cloud, saying, "This is my Son, whom I have chosen; listen to him."

36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When the voice had spoken, they found that Jesus was alone. The disciples kept this to themselves and did not tell anyone at that time what they had seen.



03

월

여호와와 영광이 머무르다

출 24:15-18

15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When Moses went up on the mountain, the cloud covered it,

16 여호와와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옛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and the glory of the LORD settled on Mount Sinai. For six days the cloud covered the mountain, and on the seventh day the LORD called to Moses from within the cloud.

17 산 위의 여호와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같이 보였고

To the Israelites the glory of the LORD looked like a consuming fire on top of the mountain.

18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 일 사십 야를 산에 있으니라

Then Moses entered the cloud as he went on up the mountain. And he stayed on the mountain forty days and forty nights.



04

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눅 18:35-43

35 예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As Jesus approached Jericho, a blind man was sitting by the roadside begging.

36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대

When he heard the crowd going by, he asked what was happening.

37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They told him, 'Jesus of Nazareth is passing by.'

38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He called out,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39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Those who led the way rebuked him and told him to be quiet, but he shouted all the mor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40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Jesus stopped and ordered the man to be brought to him. When he came near, Jesus asked him,

41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Lord, I want to see,' he replied.

42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Jesus said to him, 'Receive your sight; your faith has healed you.'

43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Immediately he received his sight and followed Jesus, praising God. When all the people saw it, they also praised Go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5

수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눅 19:1-10

- 1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Jesus entered Jericho and was passing through.
- 2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A man was there by the name of Zacchaeus; he was a chief tax collector and was wealthy.
- 3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He wanted to see who Jesus was, but being a short man he could not, because of the crowd.
- 4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So he ran ahead and climbed a sycamore-fig tree to see him, since Jesus was coming that way.
-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When Jesus reached the spot, he looked up and said to him, 'Zacchaeus, come down immediately.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 6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So he came down at once and welcomed him gladly.
- 7 모든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All the people saw this and began to mutter, "He has gone to be the guest of a 'sinner.' "
-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But Zacchaeus stood up and said to the Lord, 'Look, Lord! Here and now I give half of my possessions to the poor, and if I have cheated anybody out of anything, I will pay back four times the amount.'
-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this man, too, is a son of Abraham.'
- 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what was los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6

목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2-18

12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 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the LORD appeared to him at night and said: 'I have heard your prayer and have chosen this place for myself as a temple for sacrifices.

13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When I shut up the heavens so that there is no rain, or command locusts to devour the land or send a plague among my people,

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will I hear from heaven and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15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Now my eyes will be open and my ears attentive to the prayers offered in this place.

16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I have chosen and consecrated this temple so that my Name may be there forever. My eyes and my heart will always be there.

17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As for you, if you walk before me as David your father did, and do all I command, and observe my decrees and laws,

18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I will establish your royal throne, as I covenanted with David your father when I said, 'You shall never fail to have a man to rule over Israel.'



07

금

열 므나의 비유

눅 19:11-19

11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다

While they were listening to this, he went on to tell them a parable, because he was near Jerusalem and the people thought that the kingdom of God was going to appear at once.

12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He said: 'A man of noble birth went to a distant country to have himself appointed king and then to return.

13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So he called ten of his servants and gave them ten minas. 'Put this money to work,' he said, 'until I come back.'

14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됄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였더라

"But his subjects hated him and sent a delegation after him to say, 'We don't want this man to be our king.'

15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He was made king, however, and returned home. Then he sent for the servants to whom he had given the money, in order to find out what they had gained with it.

16 그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The first one came and said, 'Sir, your mina has earned ten more.'

17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관세를 차지하라 하고

" 'Well done, my good servant!' his master replied. 'Because you have been trustworthy in a very small matter, take charge of ten cities.'

18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나이다

"The second came and said, 'Sir, your mina has earned five more.'

19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His master answered, 'You take charge of five citie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8

토

주인에 대한 오해

눅 19:20-27

20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Then another servant came and said, 'Sir, here is your mina; I have kept it laid away in a piece of cloth.

21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I was afraid of you, because you are a hard man. You take out what you did not put in and reap what you did not sow.'

22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His master replied, 'I will judge you by your own words, you wicked servant! You knew, did you, that I am a hard man, taking out what I did not put in, and reaping what I did not sow?'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Why then didn't you put my money on deposit, so that when I came back, I could have collected it with interest?'

24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Then he said to those standing by, 'Take his mina away from him and give it to the one who has ten minas.'

25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 'Sir,' they said, 'he already has ten!'

26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He replied, 'I tell you that to everyone who has, more will be given, but as for the one who has nothing,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away.'

27 그리고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But those enemies of mine who did not want me to be king over them-bring them here and kill them in front of me.'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9

주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요 13:1-17

-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It was just before the Passover Feast. Jesus knew that the time had come for him to leave this world and go 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he now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

-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The evening meal was being served, and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Judas Iscariot, son of Simon, to betray Jesus.

-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and that he had come from God and was returning to God;

-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so he got up from the meal, took off his outer clothing, and wrapped a towel around his waist.

- 5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After that, he poured water into a basin and began to wash his disciples' feet, drying them with the towel that was wrapped around him.

-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He came to Simon Peter, who said to him, 'Lord, are you going to wash my feet?'

- 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Jesus replied, 'You do not realize now what I am doing, but later you will understand.'

- 8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No,' said Peter, 'you shall never wash my feet.' Jesus answered, 'Unless I wash you, you have no part with me.'

- 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Then, Lord,' Simon Peter replied, 'not just my feet but my hands and my head as well!'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Jesus answered, 'A person who has had a bath needs only to wash his feet; his whole body is clean. And you are clean, though not every one of you.'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For he knew who was going to betray him, and that was why he said not every one was clean.

12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When he had finished washing their feet, he put on his clothes and returned to his place. 'Do you understand what I have done for you?' he asked them.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You call me 'Teacher' and 'Lord,' and rightly so, for that is what I am.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Now that I,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should wash one another's feet.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I have set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I tell you the truth, no servant is greater than his master, nor is a messenger greater than the one who sent him.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Now that you know these things, you will be blessed if you do them.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10

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벧전 2:21-25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To this you were called, because Christ suffered for you, leaving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follow in his steps.

22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He committed no sin, and no deceit was found in his mouth.'

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When they hurled their insults at him, he did not retaliate; when he suffered, he made no threats. Instead, he entrusted himself to him who judges justly.

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tree, so that we might die to sins and live for righteousness;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For you were like sheep going astray, but now you have returned to the Shepherd and Overseer of your souls.



11

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눅 19:28-34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After Jesus had said this, he went on ahead, going up to Jerusalem.

29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As he approached Bethphage and Bethany at the hill called the Mount of Olives, he sent two of his disciples, saying to them,

30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Go to the village ahead of you, and as you enter it, you will find a colt tied there, which no one has ever ridden. Untie it and bring it here.

31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If anyone asks you, 'Why are you untying it?' tell him, 'The Lord needs it.' "

32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Those who were sent ahead went and found it just as he had told them.

33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As they were untying the colt, its owners asked them, 'Why are you untying the colt?'

34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They replied, 'The Lord needs i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2

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눅 19:35-40

35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They brought it to Jesus, threw their cloaks on the colt and put Jesus on it.

36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겹옷을 길에 퍼더라

As he went along, people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37 이미 감람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When he came near the place where the road goes down the Mount of Olives, the whole crowd of disciples began joyfully to praise God in loud voices for all the miracles they had seen:

38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and glory in the highest!'

39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Some of the Pharisees in the crowd said to Jesus, 'Teacher, rebuke your disciples!'

40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I tell you,' he replied, 'if they keep quiet, the stones will cry out.'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3

목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

눅 19:41-44

41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As he approached Jerusalem and saw the city, he
wept over it

42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and said, 'If you, even you, had only known on this day what would bring you peace-but now it is hidden from your eyes.

43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The days will come upon you when your enemies will build an embankment against you and encircle you and hem you in on every side.

44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They will dash you to the ground, you and the children within your walls. They will not leave one stone on another,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4

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눅 19:45-48

45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Then he entered the temple area and began driving
out those who were selling.

46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
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
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It is written," he said to them, " 'My house will be
a house of prayer';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robbers.' "

47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
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를 죽이려고 꾀하되
Every day he was teaching at the temple. But the
chief priests,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leaders
among the people were trying to kill him.

48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
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Yet they could not find any way to do it, because all
the people hung on his words.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5

토

예수님의 권위

눅 20:1-8

1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One day as he was teaching the people in the temple courts and preaching the gospel,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together with the elders, came up to him.

2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Tell us by what authority you are doing these things,' they said. 'Who gave you this authority?'

3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He replied, 'I will also ask you a question. Tell me,

4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John's baptism-was it from heaven, or from men?'

5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They discussed it among themselves and said, "If we say, 'From heaven,' he will ask, 'Why didn't you believe him?'

6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 이라 하고

But if we say, 'From men,' all the people will stone us, because they are persuaded that John was a prophet."

7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So they answered, "We don't know where it was from."

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Jesus said, 'Nei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am doing these things.'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6

주일

나는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 26:31-46 & 마 26:57-75

[마 26:31-46]

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Then Jesus told them, "This very night you will all fall away on account of me, for it is written: "I will strike the shepherd, and the sheep of the flock will be scattered."

32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But after I have risen, I will go ahead of you into Galilee.'

33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Peter replied, 'Even if all fall away on account of you, I never will.'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I tell you the truth,' Jesus answered, 'this very night, before the rooster crows, you will disown me three times.'

35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But Peter declared, 'Even if I have to die with you, I will never disown you.' And all the other disciples said the same.

36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겔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Then Jesus went with his disciples to a place called Gethsemane, and he said to them, 'Sit here while I go over there and pray.'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He took Peter and the two sons of Zebedee along with him, and he began to be sorrowful and troubled.

38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Then he said to them,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Stay here and keep watch with me.'





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Going a little farther, he fell with his face to the ground and prayed, 'My Father, if it is possible, may this cup be taken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40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Then he returned to his disciples and found them sleeping. 'Could you men not keep watch with me for one hour?' he asked Peter.

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body is weak.'

42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He went away a second time and prayed, 'My Father, if it is not possible for this cup to be taken away unless I drink it, may your will be done.'

43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When he came back, he again found them sleeping, because their eyes were heavy.

44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So he left them and went away once more and prayed the third time, saying the same thing.

45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Then he returned to the disciples and said to them,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Look, the hour is near, and the Son of Man is betrayed into the hands of sinners.'

46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Rise, let us go! Here comes my betrayer!

[마 26:57-75]

57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 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Those who had arrested Jesus took him to Caiaphas, the high priest, where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elders had assembled.

58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But Peter followed him at a distance, right up to the courtyard of the high priest. He entered and sat down with the guards to see the outcome.

59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The chief priests and the whole Sanhedrin were looking for false evidence against Jesus so that they could put him to death.

60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But they did not find any, though many false witnesses came forward. Finally two came forward

61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and declared, "This fellow said, 'I am able to destroy the temple of God and rebuild it in three days.' "

62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Then the high priest stood up and said to Jesus, 'Are you not going to answer? What is this testimony that these men are bringing against you?'

63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But Jesus remained silent. The high priest said to him, 'I charge you under oath by the living God: Tell us if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6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Yes, it is as you say,' Jesus replied. 'But I say to all of you: In the future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the Mighty One and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65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 하는 말을 들었도다

Then the high priest tore his clothes and said, 'He has spoken blasphemy! Why do we need any more witnesses? Look, now you have heard the blasphemy.'

66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What do you think?' 'He is worthy of death,' they answered.



67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Then they spit in his face and struck him with their
fists. Others slapped him

68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and said, 'Prophecy to us, Christ. Who hit you?'

69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아
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
도다 하거늘
Now Peter was sitting out in the courtyard, and a
servant girl came to him. 'You also were with Jesus of
Galilee,' she said.

70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But he denied it before them all.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he said.

71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
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
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Then he went out to the gateway, where another girl
saw him and said to the people there, 'This fellow
was with Jesus of Nazareth.'

72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He denied it again, with an oath: "I don't know the
man!"

73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
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
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After a little while, those standing there went up to
Peter and said, 'Surely you are one of them, for your
accent gives you away.'

74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Then he began to call down curses on himself
and he swore to them, "I don't know the man!"
Immediately a rooster crowed.

75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
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
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Then Peter remembered the word Jesus had spoken:
'Before the rooster crows, you will disown me three
times.' And he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17

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요 21:7-13

- 7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겹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Then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said to Peter, 'It is the Lord!' As soon as Simon Peter heard him say, 'It is the Lord,' he wrapped his outer garment around him (for he had taken it off) and jumped into the water.

- 8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십 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The other disciples followed in the boat, towing the net full of fish, for they were not far from shore, about a hundred yards.

- 9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When they landed, they saw a fire of burning coals there with fish on it, and some bread.

-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 오라 하시니

Jesus said to them, 'Bring some of the fish you have just caught.'

- 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선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Simon Peter climbed aboard and dragged the net ashore. It was full of large fish, 153, but even with so many the net was not torn.

- 12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Jesus said to them, 'Come and have breakfast.' None of the disciples dared ask him, 'Who are you?' They knew it was the Lord.

- 13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같이 하시니라

Jesus came, took the bread and gave it to them, and did the same with the fish.



18

화

포도원 농부의 비유

눅 20:9-19

9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He went on to tell the people this parable: 'A man planted a vineyard, rented it to some farmers and went away for a long time.

10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At harvest time he sent a servant to the tenants so they would give him some of the fruit of the vineyard. But the tenants beat him and sent him away empty-handed.

11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He sent another servant, but that one also they beat and treated shamefully and sent away empty-handed.

12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 쫓은지라

He sent still a third, and they wounded him and threw him out.

13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Then the owner of the vineyard said, 'What shall I do? I will send my son, whom I love; perhaps they will respect him.'

14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But when the tenants saw him, they talked the matter over. 'This is the heir,' they said. 'Let's kill him, and the inheritance will be ours.'

15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So they threw him out of the vineyard and killed him. 'What then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to them?

16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He will come and kill those tenants and give the vineyard to others.'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said, 'May this never be!'

17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이냐

Jesus looked directly at them and asked, "Then what is the meaning of that which is written: "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apstone'?

18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Everyone who falls on that stone will be broken to pieces, but he on whom it falls will be crushed.'

19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chief priests looked for a way to arrest him immediately, because they knew he had spoken this parable against them. But they were afraid of the peopl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9

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

눅 20:20-26

20 이에 그들이 옛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Keeping a close watch on him, they sent spies, who pretended to be honest. They hoped to catch Jesus in something he said so that they might hand him over to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governor.

21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So the spies questioned him: 'Teacher, we know that you speak and teach what is right, and that you do not show partiality but teach the way of God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22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Is it right for us to pay taxes to Caesar or not?'

23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He saw through their duplicity and said to them,

24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Show me a denarius. Whose portrait and inscription are on it?'

25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Caesar's," they replied. He said to them, "Then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26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They were unable to trap him in what he had said there in public. And astonished by his answer, they became silen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0

목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눅 20:27-40

27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28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9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30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31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32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33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36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37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 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38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39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 하셨나이다 하니

40 그들은 아무 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1

금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눅 20:41-47

41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Then Jesus said to them, 'How is it that they say the Christ is the Son of David?

42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David himself declares in the Book of Psalms: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43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until I make your enemies a footstool for your feet."

44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David calls him 'Lord.' How then can he be his son?"

45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While all the people were listening, Jesus said to his disciples,

46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Beware of the teachers of the law. They like to walk around in flowing robes and love to be greeted in the marketplaces and have the most important seats in the synagogues and the places of honor at banquets.

47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They devour widows' houses and for a show make lengthy prayers. Such men will be punished most severely."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2

토

가난한 과부의 헌금

눅 21:1-4

1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As he looked up, Jesus saw the rich putting their gifts into the temple treasury.

2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He also saw a poor widow put in two very small copper coins.

3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I tell you the truth,' he said, 'this poor widow has put in more than all the others.'

4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All these people gave their gifts out of their wealth;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all she had to live on.'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3

주일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눅 22:44-53

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And being in anguish, he prayed more earnestly, and his sweat was like drops of blood falling to the ground.

45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When he rose from prayer and went back to the disciples, he found them asleep, exhausted from sorrow.

46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Why are you sleeping?' he asked them. 'Get up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47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While he was still speaking a crowd came up, and the man who was called Judas, one of the Twelve, was leading them. He approached Jesus to kiss him,

48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but Jesus asked him, 'Judas, are you betraying the Son of Man with a kiss?'

49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When Jesus' followers saw what was going to happen, they said, "Lord, should we strike with our swords?"

50 그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And one of them struck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cutting off his right ear.

51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But Jesus answered, "No more of this!" And he touched the man's ear and healed him.

52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Then Jesus said to the chief priests, the officers of the temple guard, and the elders, who had come for him, 'Am I leading a rebellion, that you have come with swords and clubs?'

53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Every day I was with you in the temple courts, and you did not lay a hand on me. But this is your hour when darkness reigns.'



24

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요 10:14-18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I am the good shepherd; I know my sheep and my sheep know me-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just as the Father knows me and I know the Father- and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16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I have other sheep that are not of this sheep pen. I must bring them also. They too will listen to my voice, and there shall be one flock and one shepherd.

17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The reason my Father loves me is that I lay down my life-only to take it up again.

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No one takes it from me, but I lay it down of my own accord. I have authority to lay it down and authority to take it up again. This command I received from my Father.'



25

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눅 21:5-9

5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Some of his disciples were remarking about how the temple was adorned with beautiful stones and with gifts dedicated to God. But Jesus said,

6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As for what you see here, the time will come when not one stone will be left on another; every one of them will be thrown down.'

7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며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Teacher,' they asked, 'when will these things happen? And what will be the sign that they are about to take place?'

8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He replied: "Watch out that you are not deceived. For many will come in my name, claiming, 'I am he,' and, 'The time is near.' Do not follow them.

9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When you hear of wars and revolutions, do not be frightened. These things must happen first, but the end will not come right away.'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6

수

환난의 징조

눅 21:10-19

10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Then he said to them: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11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There will be great earthquakes, famines and pestilences in various places, and fearful events and great signs from heaven.

12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But before all this, they will lay hands on you and persecute you. They will deliver you to synagogues and prisons, and you will be brought before kings and governors, and all on account of my name.

13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This will result in your being witnesses to them.

14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But make up your mind not to worry beforehand how you will defend yourselves.

15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For I will give you words and wisdom that none of your adversaries will be able to resist or contradict.

16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You will be betrayed even by parents, brothers, relatives and friends, and they will put some of you to death.

17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All men will hate you because of me.

18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But not a hair of your head will perish.

19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By standing firm you will gain life.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7

목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눅 21:20-28

- 20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When you see Jerusalem being surrounded by armies, you will know that its desolation is near.

- 21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Then let those who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let those in the city get out, and let those in the country not enter the city.

- 22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For this is the time of punishment in fulfillment of all that has been written.

- 23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How dreadful it will be in those days for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There will be great distress in the land and wrath against this people.

- 24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They will fall by the sword and will be taken as prisoners to all the nations. Jerusalem will be trampled on by the Gentiles until the times of the Gentiles are fulfilled.

- 25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There will be signs in the sun, moon and stars. On the earth, nations will be in anguish and perplexity at the roaring and tossing of the sea.

- 26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Men will faint from terror, apprehensive of what is coming on the world, for the heavenly bodies will be shaken.

- 27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At that time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a cloud with power and great glory.

- 28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When these things begin to take place, stand up and lift up your heads, because your redemption is drawing near.'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8

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눅 21:29-33

29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He told them this parable: 'Look at the fig tree and all the trees.

30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When they sprout leaves, you can see for yourselves and know that summer is near.

31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Even so, when you see these things happening, you know that the kingdom of God is near.

3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I tell you the truth, this generation will certainly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have happened.

33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9

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눅 21:34-38

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닢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Be careful, or your hearts will be weighed down with dissipation, drunkenness and the anxieties of life, and that day will close on you unexpectedly like a trap.

35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For it will come upon all those who live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36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Be always on the watch, and pray that you may be able to escape all that is about to happen, an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37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Each day Jesus was teaching at the temple, and each evening he went out to spend the night on the hill called the Mount of Olives,

38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and all the people came early in the morning to hear him at the temple.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30

주일

세 번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눅 22:54-62

54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Then seizing him, they led him away and took him into the house of the high priest. Peter followed at a distance.

55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 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But when they had kindled a fire in the middle of the courtyard and had sat down together, Peter sat down with them.

56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A servant girl saw him seated there in the firelight. She looked closely at him and said, 'This man was with him.'

57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But he denied it. "Woman, I don't know him," he said.

58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A little later someone else saw him and said, 'You also are one of them.' 'Man, I am not!' Peter replied.

59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About an hour later another asserted, 'Certainly this fellow was with him, for he is a Galilean.'

60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Peter replied, "Man,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Just as he was speaking, the rooster crowed.

61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Peter. Then Peter remembered the word the Lord had spoken to him: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isown me three times.'

62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And he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2024.
06

동원장학회 간증과 비전나눔

이

1. 동원이 아버지 간증 : 이대승 성도 (N강남공동체)
2. 장학생 비전나눔1 : 신비한 장학생
3. 장학생 비전나눔2 : 유정은 장학생
4. 장학생 비전나눔3 : 이설경 장학생

2022년 12월 2일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예수님 품에 안긴故 이동원 어린이를 기억하며 새로운교회는 동원의 이름을 담아 「동원장학회」를 출원하여, 하나님의 꿈을 품은 다음 세대의 영적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년 동안 꿈과 비전이 있으나 재정 사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과 새로운교회 목회 철학에 맞는 학생으로 지도력이 있어 타에 모범이 되는 **신학생 3명, 대학생 6명, 청소년 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훌륭한 영적리더를 양성하였고, 2024년 5월에는 **2회 장학생으로 신학생 3명, 대학생 2명, 청소년 5명**을 추가 선발하였습니다. 동원장학회 장학생들이 이 시대의 따뜻한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동원이가 이 땅에 남긴 거룩한 씨앗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며 굳건히 자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동원이 아버지 간증 : 저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대승 성도 (N강남공동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2년 겨울 동원이가 하늘 나라에 갔을 때, 제 마음 속에는 원망과 분노의 마음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에 대한, 타인에 대한, 사회에 대한, 그리고 하

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있었지요. 하나님께 동원이가 하나님과 잘 있음을 직접 말씀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요구에 가까웠지요. 증오, 불만, 무기력으로 가득한 저는 밖으로는 직장, 교회 등 최소한 범위에서 교제하며 집에서 혼자만의 동굴에서 자신을 질책하며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2024년 신년특별새벽기도회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무한히 사랑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원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잘 자라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던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미래를 계획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저의 첫 번째 소망은 제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동원의 생전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비판하였고 나이가 들면서 더 세상을 많이 알게 될수록 더 엄격한 잣대로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 된 교회는 밖에서 보는 외형적 조직,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장로/성도가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노력이 그 실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서로 교제하며 그 소중함과 중요성을 절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삶에 조금씩이나

마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동원이가 하늘나라에서 기뻐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가장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을 만드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빈번하게 하던 저만의 세속적 기준의 판단을 내려놓고, 가족 구성원을 하나님이 주신 성품 그대로 존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고, 기도로 이를 지켜나가니 놀랍게도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가족 기도를 준비하면서 가족들을 더 많이 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게 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천국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기 바라며, 이 귀중한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분들에게 전달하기 원합니다. 혹시, 저와 같이 광야에서 힘들게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유일한 출구는 하나님을 통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땅에서 그리고 동원은 하늘에서 천사가 되어 서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일이 되겠지요.

지난달에 한 홍 목사님께서 쓰신 책 “다윗 숨겨진 전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고 오로지 선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저는 동원을 사랑에 이르게 한 사람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과 위안을 주고 계십니다.

동원과 다시 만날 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 말씀 품고 하나님 뜻에 따라 믿음의 가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최선의 미래, 아름다운 미래를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장학생 비전나눔1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비한 장학생



지난 한 해 동안 동원장학회 장학생으로 지낼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한 홍 담임목사님과 이성훈 목사님, 이수진 멘토님, 그리고 무엇보다 제 동생과 비슷한 나이

였던 동원의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원장학회 장학생으로 지내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작은 웃음으로 시작되는 기쁨이 전파되길 바라며 중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저를 ‘항상 웃고 있는 친구’라고 기억합니다. 늘 무표정이던 한 친구는 저의 웃음이 도움이 된 것인지 어느 날부터 저만 보면 웃으며 눈에 띄게 밝아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와는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너 덕분에 밝아져서 새 친구들과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말을 하던 제가 항상 밝게 웃어 주어 본인이 자신감을 얻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학교 밖에서도 웃음을 전하고 싶어 카페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분들, 경비원 아저씨,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분들께 환하게 먼저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분들의 굳어 있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어쩌면 고단하고 힘드셨을 그분들의 하루에 밝은 인사 같은 저의 아주 사소한 행동이 미소를 머금게 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앞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지 이제 막 두 달이 지났

지만 웃음을 전하는 노력으로 반 친구들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용성을 담기 위해 웃음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저의 작은 실천으로 인해 웃음꽃이 피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마냥 하고 싶었던 게 많았지만 고등학생이 되어 보니 진로라는 것이 삶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선택에 신중해졌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제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무엇을 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을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삶이 사소한 것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작게는 그저 웃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기분이 바뀔 수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파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웃음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를 쌓은 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여 웃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직은 명확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진 본분인 학생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예배나 수련회에 열심히 참석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로 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진로도 없고, 하고 싶은 분야도 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열심히 소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 제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생 비전나눔2

한 알의 밀알로 인하여 부르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정은 장학생



동원이라는 한 알의 밀알로 인해 제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학기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많은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선정이 된 것도,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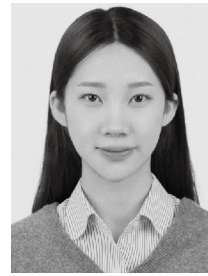
저는 3번의 죽음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기도로 치유받게 되며, 부모님께서 서원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있고 살며 유아교육 전공을 했고, 아이들에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좋았고, 그래서 선교원을 세우려는 꿈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난소암이라는 고난을 주시면서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절대 저는 신학생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생각과 두려움이 있었기에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회 활동에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한 번의 직장안선고를 받게 되었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음성과 함께 저를 불드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었고, 늦었지만 신학대학원 과정에 진학하게 되면서 모든 조건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경험이 있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원장학금으로 인한 감사함으로 좀 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세대에 대한 비전과 함께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교육에 관심을 가지며, 기독교 교육사상연구(하부르타) 기독교 교육 영성훈련, 비블리오프드라마 연구 등을 배우기

도 하면서 다음세대에 대한 교육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학회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참여하였고, 미취학부 교구팀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한 교구 4주 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치부를 담당하면서 말씀을 전달할 때의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어서 말씀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성경통독을 원우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중등부 친구들과 성경일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 중인 산상수훈 암송이 있어서 현재 마태복음 5-6장을 외우고, 7장을 외우고 있는 중이며,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에스겔, 마태복음 등의 세미나 과목을 보충해서 듣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부족함을 위해 어! 성경을 듣고 저만의 묵상과 함께 계속 연구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큐티를 통해 묵상을 하면서 저만의 설교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목회상담을 배우면서 상담을 통한 공감의 중요성과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온몸을 다해 드리는 마음의 예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전세대를 하나로 만드는 예배의 구성,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른신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기도의 교사로 세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활동으로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아기학교 7주 프로그램 안에서 오감으로 말씀을 느끼고 체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계획이 다음세대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조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로 준비하며, 그 길이 맞는지 다윗처럼 묻고 또 물어보면서 한 발자국씩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 저에게 있어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무엇이든 펼쳐진 일들에 도전해 보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저는 오늘을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학생 비전나눔3

주님의 비전을 전하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이설경 장학생



중학교 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꿈꾸는 장 학재단의 장학생 지원서를 넣었고, 감사하게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장학금으로 동아리를

개설하여 타이다이 티셔츠를 제작하여 학교 축제 날 판매를 하기도 했으며, 수익은 밥 한 끼라는 장학재단에 전액후원을 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각자의 패션을 촬영한 뒤, 편집을 하여 룩북과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모여 만든 잡지를 고등학교 1학년인 2018년, 첫 꿈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제 눈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지만, 당시에는 친구들과 서로의 꿈을 나누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패션에 대한 꿈을 더 크게 꾸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도 기독교 대안학교 다음학교를 졸업하여 19살 때 이화여자대학교에 1학년으로 조기 입학했습니다. 현재 공부 중인 전공은 의류산업학과이며, 대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작업과 활동을 하며 패션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대표적으로 했던 활동은 연합 동아리에 들어가 컨셉트에 맞게 의상을 제작하여 팀원들과 함께 화보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는 1년간 과대표를 하며, 교수님과 학생들의 소통의 다리

가 되어주었습니다. 쉽지 않은 역할이었지만, 그만큼 학과 내 행사에 제일 가까워서 기획하고 진행하며, 봉사할 수 있어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2학년 방학 때는 선배님들과 함께 모여 공모전을 준비하여 한국의류학회에서 진행한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좋은 결과를 거둬 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공모전 중 저는 컬렉션 디자인 제안과 프로모션 제안을 총괄하였습니다.

중학생 때 가진 희미한 꿈이 고등학생 때 뚜렷해지며 그때 가진 패션에 대한 꿈을 저는 현재도 꾸고 있고 앞으로도 꿀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미국 대학원에서 제가 좋아하는 패션을 공부하고 개인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입니다.

제게 가슴 뛰는 비전은 패션과 선교에 대한 꿈입니다. 저는 더 심도 있는 석사 공부를 통해 패션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은 후, 저만의 열정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브랜드를 세상에 선보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벌기보다 제 브랜드가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 제 최종 목표입니다. 제 브랜드가 유명해져 제 목소리가 많은 이들에게 퍼지면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북한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통일을 위한 사역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전하는 그릇이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새로운교회의 동원장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
06

러브미니스트리 섬김의 날 간증

02

1. 김진희G 성도 (S서초공동체)
2. 이진영A 권사 (C강남공동체)
3. 조현경A 성도 (우면공동체)
4. 김보리A 학생 (뉴젠 YEM)

자원봉사활동

새빛가족들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사랑을 만드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 새빛바울의집

내가 하는 사랑을 너도 해볼래? 우리 같이 하자!

김진희G 성도 (S서초 공동체)



지난 겨울 큰 수술을 받은 딸아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귀한 기도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크신 하나님 은혜로 딸은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해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께 이 감사를 어찌 돌려드려야 할지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는 제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섬김의 날을 진행한다는 광고는 감사의 빛을 던져주시는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하는 사랑을 너도 해볼래? 우리 같이 하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러브더월드’의 미혼모와 싱글맘 섬김에 함께 하기로 했는데 약속된 날을 기다리며 섬김의 기회 주심에 대한 감사와 괜히 신청했다 하는 두 가지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원 두 분도 함께 신청한 것을 알게 되었고 주 안에서 함께함의 평안을 또 한 번 경험하며 걱정은 떠나가고 감사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만 남았습니다.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러브더월드에서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사역에 대한 안내와 유의사항 그리고 현실상황에 대해 들으며 미혼모와 싱글맘의 어려움과 그들을 품고 함께 하시는 사역자들의 수고와 사랑을 작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한 가정씩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기도제목을 나눠 주시며 위로와 격려, 그리고 ‘잘하고 있어!’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칭찬이 담긴 손 편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저의 짝은 중2와 6살 남매 그리고 엄마였습니다. 여러 이야기 중에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중2 자녀와 답하는 엄마의 대화를 들으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리고 조용한 수줍음 많은 사춘기 소녀의 상처를

엄마도 마음에 힘이 없어 보듬어 주지 못하는 상황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고 작은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포기하고 인내하며 지키고 있는 엄마의 자리일텐데 나의 안타까움이 교만은 아닐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 역시 엄마의 자리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잘 보듬어 주지 못하는 고민과 갈등으로 눈물 흘릴 때가 있어서 나와 내 짝이 하나님이나 자녀들의 참 부모이심을 선포하며, 나를 통해 내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이 흘러감을 잊지 않길 바라며, 눈물을 닦으시고 상처를 보듬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그 가정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을 품고 집에 돌아와 자주 눈길이 가는 곳에 이름과 기도제목을 붙여 두고 계속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섬김을 마무리하며 꽃다발과 선물과 편지를 드렸는데 환하게 웃던 엄마의 얼굴이 마음에 남습니다. 주의 생명력 가득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의 은혜 안에 모이는 가정되어 지금은 위로와 격려받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내일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러브더월드의 사역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도 미혼모와 싱글맘 가정을 인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추억 쌓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생명으로 우리를 지키셨듯이 생명 바쳐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켜내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물해 주신 산책

이진영A 권사 (C강남공동체)



새빛맹인선교회를 방문하기 전날 잠을 설치도록 긴장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체구도 작은 제가 누군가를 인도하여 산책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과 무슨 얘기를 나누며 산책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걱정이 되었는데 ‘시설 청소를 한다고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출발을 하였으나 산책도우미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어 마음과는 다르게 산책도우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복지사님의 시설 안내와 산책 도우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놀라고 와닿았던 부분은 9년 만에 교회에서 온 첫 팀이었다는 것과 시각 장애인들이 늘 도움을 받으며 지내기에 산책 후 봉사자들에게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서 기쁘게 받아주시라는 것과 산책하는 동안 길거리의 풍경을 설명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짝을 이룬 자매님은 제 또래의 자매님이었는데 마치 여러 번 만난 것처럼 서로 예배의 은혜와 가는 길의 풍경에 대한 설명에 귀 기울이며 질문도 하고 지난 나들이를 갔던 남산과 도봉산에 무슨 꽃이 피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등등의 얘기를 상세히 듣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인 현충원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자매님은 편의점과 카페에서 2번이나 즐겁게 제

게 대접을 해주며 제가 산책 도우미를 너무 잘해서 휴대용 지팡이를 펴 일이 없었다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현충원에서 휴식시간을 가진 후 돌아가는 길은 처음보다 몸에 긴장이 풀리고(실은 가는 길에 긴장도 되고 얘기도 해야 해서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서로의 취미에 대해 얘기 나누는 산책 시간이 되었고 다음에도 오면 좋겠다는 부탁도 들었습니다. 러브미니스트리 팀에서 준비한 맛있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나누고 집에 돌아오며 저는 ‘보이지 않는 분에게 풍경 설명을 해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잠시 생각했던 제가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의 팔을 의지하여 길 안내와 풍경 설명에 귀 기울이고 질문을 하며 심지어 지난 산책의 기억을 제게도 설명해 주던 자매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생길을 가며 힘들다고 한숨지었던 저의 모습과 그 길에서 제 손을 잡아주시며 세심히 말씀해 주시는 주님 모습이 오버랩되며 울컥했습니다.

부담감을 갖고 갔던 짧은 섬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다녀와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러브미니스트리 섬김의 날을 통해 오랜 시간 멈췄던 사랑의 실천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길동무와의 산책에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러브미니스트리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허락된 기쁨

조현경A 성도 (우면공동체)



네 아이의 엄마로 아이들이 잘 키우고 싶다는 목적 아래에서 오로지 가정에만 집중하며 살던 저를 하나님은 새로운교회로 이끄시며 수년간 잊고

살았던 가족뿐 아니라 더 큰 이웃 사랑에 대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러브미니스트리는 광고로 보면서 제가 꼭 참여해보고 싶은 봉사였고, 인생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시기를 겪고 있어서, 북한군도 무서워(?) 한다는 중학교 2학년 셋째에게도 꼭 필요한 시간일 것 같아서 딸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드디어 당일, 마음은 분주한데 휴일 아침에 식구들 챙겨야 할 것은 많고,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출발시간에 정신없이 도착했습니다. 출발하는 차 안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성도님들과 어색함도 잠시, 도착하자마자, 목사님께서 섬길 아이들을 매칭해 주셨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함께 마시고 나누는 시간은 금세 어색함을 깨뜨리고 즐거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딸은 목적지가 에버랜드가 아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화내지 않고, 함께 섬기러 온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꼬마들과 나이를 뛰어넘는 교감 능력을 보이며,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인지 그냥 노는 것인지 분간이 안가도록 즐겁게 놀며 뛰어 시간을 보냈고, 저도 오

롯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에는 웃음이 많고, 사랑스러운 아이, 흥이 많아 기쁨이 주체되지 않는 아이, 조용히 작은 손을 내밀어 다가오는 부끄럼 많은 아이, 하나님이 지으신 다양한 성품과 모습을 한 아이들로 가득했고 그 아이들에게 지워져 있는 현실의 고통과 아픔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시간을 즐기는 아이들의 흥겨운 모습에 그 생각은 사라지고 돌보기보다 저 역시도 함께 웃고 즐기고 뛰노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긴 시간을 보내면서 한편으로 지칠 만도 했지만, 함께 봉사하시는 성도님이 지나가듯 하시는 “이 아이들처럼 지금 에버랜드에 있는 부모들도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어”라는 한마디 한마디는 간절한 기도처럼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직 다음 스케줄도 잡지 않았음에도 이미 다음 스케줄에 참여할 것처럼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다라던지 등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이미 마음이 다음 사역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래간만에 무리한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한 주 동안 늘 머릿속을 맴돌던 찬양의 가사를 곱씹어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라는 찬양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나라가 천국인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

히 고난 받고 아플까라는 아이의 질문에 그런 아픔이 가득한 현실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서로 사랑으로 짐을 나누어지면서 언젠가 오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살아가자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천국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이라는 이야기처럼 오늘의 아픔과 고난에 희망을 잃을 수 있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나와, 자녀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짐을 나눠지면서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의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구나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즐거우면서도 제 맘에 무거움으로 다가온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깊어진 삶의 무게 그 너머에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서로 천국을 맛보는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러브미니스트리는 봉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 딸을 향해 준비하신, 천국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이런 특별한 선물 같은 시간들을 더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힐링이 되었던 시간

김보리아 학생 (뉴젠 YEM)



에버랜드 가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돌본다는 말이, 에버랜드에서 아이들을 돌본다는 말로 잘못 알고, 에버랜드에 갈 준비를 하다가, 에버랜드에 가지 않고 아이들을 돌본다고 했을 때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따라나섰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차에는 다 어른들만 있어서 낮설고 가서 뭘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데, 놀말 안 듣던 제 동생과 달리, 다들 얼마나 말도 잘 듣고 착한 아이들인지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저를 따라 열심히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싶었던 저에게 오히려 제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듣기로 가정 상황이 많이 어려운 아이들이라고 들었는데, 어쩔 이렇게 밝고 이쁜지, 하나님은 가정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아이들의 밝고 귀여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중2가 이런 곳에서 봉사한다고 칭찬해주시는 어른들의 말도 당연히 제 기분을 좋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글을 쓰는 오늘도 저를 유난히 따랐던 도건이가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사이 부쩍 자란 아이들과 더 즐겁게 놀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서 딸과 함께 사는 엄마
 입니다.
 이번 러브더월드 해피데이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섬겨주신 새로운교회 한홍목사님과 봉사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봉사자님과 짝궁으로 함께 식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대화도 많이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임신한 몸으로 봉사 나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이번 해피데이 즐겁고 감동스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을 양육권인 영지입니다 <해피 데이> 행사덕분에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케이크 만들고, 북페 점심도 먹고, 이뽀 꽃대바와 선물까지 받으며 너무나 행복한 오셨답니다. 귀한 선물을 건넬게주시고, 새로운 교회의 한홍 목사님과 봉사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2024. 05. 09 유진

러브미니스트리 감사메시지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과 봉사자님들께. 케이크와 선물도 감사하고 무척이나 너무 맛있었습니다. ^^ (이씨가 어찌 낯선생물 먹지 않게 하니 특별한 맛을 느끼었는데 오랜만에 너무 맛있었네요 ^^) 식사시간에 같이 아질되어 앉았던 짐승들과의 케이크도 너무 즐거웠고, 끝나고 늦에 들려주신 꽃대바와 정음은 오랜만에 바쁜 하루 위한 꽃대바였던 것 같아요. 아이 덕분에 행복했지만 종종 아이 짐나질리물 반이쁘다면 답답한 마음에 심란할때도 있었는데 행복한 해피데이 덕분에 불안함을 떨치고 공방 일상으로 돌아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행복한 추억은 선물하게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4.
06

구도자 커피브레이크 간증

03

1. 유경은 성도 (E강남공동체)
2. 김지현A 성도 (S강남공동체)
3. 유택준 성도 (강북공동체)
4. 오시윤 성도 (우면공동체)
5. 이미경 성도

믿음의 고백과 나눔, 그리고 용서가 있었던 커피브레이크

유경은 성도 (E강남공동체)



제 삶을 돌아보면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고, 주님이 제 마음속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저였으니 제 생각과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고자 고군분

투했고,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으며 별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아들은 처음으로 제가 만난, 이해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난제였습니다. 예민하고, 약하고, 특이하고, 뭔가 좀 다르다고만 생각했던 아이였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원인을 찾으려 했고, ADHD와 틱, 그로 인한 소아우울과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을 때에도 고치려고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기보다는 비난하고 문제 취급하였고, 교정의 대상으로, 격정거리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심리치료와 상담, 독서와 부모교육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마음을 돌이키고 제 시선을 바꾸고 아이를 향한 제 뜻과 의지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지속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절망감과 무력감에 허덕이며 어찌할 바를 몰라 어둠 속에서 헤고 있을 때 간절한 간구함으로 불끈 새벽기도의 자리에 앉은 제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제가 그동안 보였던 진짜 사랑의 형태를 깨닫게 하

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진짜 사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교회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사모하도록 변화시켜 주셨고 묵이고 주목받는 것이 싫어서 스쳐가듯 종교생활을 해왔던 제게 저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처음 새신자 등록을 하고 공동체에 속함을 받고 순예배의 기쁨과 감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알아감에 목마름으로 양육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을 의무가 아닌 감사로 받으며 그 과정에서 구도자 커피브레이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브레이크의 핵심은 인도자님들이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시는 수많은 질문에 있었습니다. 교재의 질문 뿐 아니라 말씀의 세세한 의미까지 어느 하나 허투루 지나가지 않고 파고들어 씹어서 완전히 제 것으로 소화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스스로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답하고 함께 나누며 말씀의 지식 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위한 소망,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도록 이끄셨습니다. 특히 빌레몬서를 통해 주님은 경건과 거룩을 아는 것을 제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지금 제 모습은 어떠한지를 더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35절에 만 달란트의 빚을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탕감하여 주었으나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던 종의 모습이 마치 저와 겹쳐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속 깊이 용서할 수 없어 남아 있는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6학년 때 같은 반 아이 하나에게 은근한 따돌림과 무시를 당했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겠다고 했었고 여러 번 불만을 토로했지만 저는 아들 편을 온전히 들어주기보다는 대응하는 법을 가르치려 했었고, 어차피 모두 좋을 수만은 없는 인간관계에 대해 얘기하며 적응시키려 했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배려로 중학교에서 같은 반에 배정받지 않을 수 있었기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중학교 진학 후에도 그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아이를 놀려대거나 거짓말로 속여 불러내어 비웃거나 무시하곤 했다는 걸 중학교 2학년 2학기야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또 놀림을 받고 들어와 A4 가득 그 아이가 했던 일들을 써서 저에게 보여주고 나서야 비로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요청으로, 학폭 신청을 하는 대신 평소 친분이 있었던 그 아이 엄마, 아빠를 함께 집에 불러 사과를 받을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아들에게 순순히 사과를 건네면서 그 문제는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 아이의 엄마로부터 사과를 받고 이후에 함께 이야기 나누며 풀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날까지도 전화 한 통하지 않는 그 부모가 계속 걸림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끝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우울을 겪으며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도 그만두었는데, 아무런 지 없게 잘 지내는 그 아이를 보며 마

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 다. 무슨 인연인지 여 동생들이 2년 동안 같은 반 앞 뒤 번호로 심지어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면서 알 수 없는 쓴 마음이 계속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지 않은 듯 겉으로는 인사하고 지나가지만 맘 속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벌 받기를 바라는 저주의 마음, 무언가 고꾸라져 저와 같이 마음 아파보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이 뿌리 깊이 남아 있었지만, 아닌 척, 용서하는 관찮은 사람인 척 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그 모습이 빌레몬서의 묵상 가운데 떠올랐습니 다.

더 큰 죄인, 부족한 저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이 제게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용서하는 것,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저의 노력과 제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임을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일깨워 주셨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을지 나 자신은 믿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그렇게 하실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부끄럽지만 망설임 끝에 자매들에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나눔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와 공간이 있었음에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삶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저의 말과 행동이 주님 사랑의 증거가 되기를, 저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임을 신뢰하고 믿으며 소망합니다.

믿음의 방향성을 찾는 커피브레이크

김지현A 성도 (S강남공동체)



초신자인 저에게 구도자 커피브레이크는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왔고 특별히 말씀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깊게 배우게 되었고, 배운 내용을 또 어떻게 제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를 배우게 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초신자인 제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인도자님의 질문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고, 조원분들의 생각도 듣고 또 따뜻하고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 부드러운 열정의 소유자이신 인도자님의 목상을 통해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 디도서를 통해 '경건과 신중'이라는 단어에 대해 특별히 목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로서는 제 마음속의 경건과 제 머릿속의 신중함을 우선 떠올렸을 텐데, 경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신중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분별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한 가르침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방향성을 찾는 다시 한번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해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

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생각하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는 제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 빌레몬서를 배우면서 특별히 저는 오네시모의 입장과 상황에 대한 목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기 이전 행동에 대해 빌레몬에게 돌아와서 그 관계에 대한 책임과 회복을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오네시모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한 내가 빌레몬이라면 바울의 부탁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동안의 저는 주고받는 관계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제 기대만큼 되돌아오지 않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믿음의 교제를 배웠고, 흘러보낸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제가 있을 때 제 삶이 더 풍요롭고 서운함이 아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제 삶 속에도 인간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변화된 제 모습과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만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풀어내는 말씀

유태준 성도 (강북공동체)



새로운교회에 온 뒤로 성경속으로, CES 멘티 멘토과정, 순모임 말씀 나눔 등 성경말씀의 재미에 빠져 지냈었는데 어느샌가 제 마음에는 여기서 더 이상 양육 프로그램은 필요 없었

구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때를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 제 아내가 특별한 상의도 없이 구도자 커피브레이크에 남성조가 생겼다고 등록하더니 예수 이름의 비밀과정까지 연달아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강제로!

처음에는 당연히 불만을 표현했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했으니 뭐라 할 수도 없고, 또 마음 한편에서는 재미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다른 양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었지만 구도자 커피브레이크 또한 새로운교회에서 처음 접하는 양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부인도자였기 때문인지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지만, 방관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자로 참석을 해보니 마음가짐부터 달라졌습니다.

다행히도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자로 계셔서 더 재미있게, 더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사실 부끄럽게도 성경 일독을 하지 않은 저에게 디도서와 빌레몬서는 처음 듣고 보는 성경본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목

사님과 같은 조원분들의 간증과 나눔들 덕분에 어색함보다 더 잘 이해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더 잘 새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를 은혜로만 끝내지 않고 감동을 감동으로만 끝내지 않고 어떻게 삶 속에서 구현해 내고 실천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바울이 디도에게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는 구절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조그마한 누룩이 전체를 발효시킨다는 비유가 조그마한 나의 실천이 전부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어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디도서에서 보여주는 경건한 삶,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보여주는 사랑과 용서, 아직 제 삶 속에서 풀어내는 것이 멀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또 목사님과 조원분들 같은 인도자와 돕는 자들이 있는 한, 계속 의식하며 실천할 수 있으리라 다짐하며 또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건함으로 삶을 되찾게 도와준 커피브레이크

오시윤 성도 (우면공동체)



커피 브레이크를 만나기 전, 저는 몸과 마음이 늘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지니 가족에게 원망과 미움이 커져갔고, 제 자신에게는 슬

픔과 두려움으로 엄습해 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져 누워있는 나 자신이 꼭 외톨이의 모습 같고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하나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께는 양치기 소년이었던 저라 차마 염치가 없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던 그때, 내 귓가에 ‘슬퍼하지 말라 외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음성이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순간 얼음이 되고 저절로 눈물이 멈추고, 마음에 고요함과 든든함으로 큰 병실이 온화하고 따뜻함으로 느껴지면서 하나님은 계속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게 믿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계기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졌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에 퇴원 후 커피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브레이크 첫날! 설레었습니다. 처음 보는 자매님들이 저를 알아보며 건강의 안부를 묻고 너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

해 중보기도를 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움으로 가슴 벅찼고 이 감사함을 빛진 자로 다시 주님께 강건한 믿음으로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공부하면서 한 주, 한 주가 완전히 저를 위한 것 같고 조에게 맞춰진 듯 제 삶도 비치면서 제 삶의 여정들이 그려졌습니다. 이 안에서 자매님들과 나눔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깨달음도 얻게 되었고 제 안에 영적, 육적인 어리석음에서 치유와 회복도 함께 경험되었습니다. 또 갈등의 골이 깊었던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도 안타까움과 가엽게 느껴지면서 눈 녹듯이 빌레몬처럼 용서도 할 수 있음으로 고백됨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갑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게 절 돕고 계셨다는 것과 계속 절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주변에 동역자들까지 심어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브레이크를 첫 시작으로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말씀과 묵상으로 믿음의 자녀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교회 다니기로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된 커피브레이크

이미경 성도



너무나 순간적으로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심을 못 잡고 넘어졌고 제 시야는 지진처럼 흔들렸고 정신을 차려 보니 아픈 발을 붙잡고 심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절상을

당하고 간신히 집으로 가서 동생을 기다려 병원에 도착해 입원을 하고 다음날 수술하고 혼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예측을 못한 상황이라 압담하고 우울하게 하루 이틀을 보냈는데 누군가 나타나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줍니다. 먼저 말을 걸어준 그분은 앞 병상에 똑같이 발을 다친 환우였는데 상냥하게 이것저것 말을 나누던 중 교회 얘기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풍요로울 때에는 자아가 강해지고, 힘이 빠지고 두려울 때는 신앙이라고 했던가요, 교회 이야기를 나누었던 날 밤,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며 지난날 교회에서 지냈던 여러 가지 추억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환하게 웃어주시는 집사님들 얼굴을 닮고 싶어서 저도 신앙이 생기면 그런 환한 웃음이 가득한 얼굴이 되겠다 하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정말 어렵게 전도한 남편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아프면서 제 신앙은 그렇게 멈추어 버렸습니다. 사별을 하고 저는 살기 위해서 현실에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교회를 몇

군데 옮겨 다녀봤지만 짧은 신앙 탓인지 정착을 못하다가 이렇게 병실에서 다시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온라인으로 같이 드리자고 하시길래 흔쾌히 응하고 화면을 보는데 너무나 낮은 복음성가가 제 귀에 들리고 마치 어제 교회를 다녀온 것처럼 거부감이 안 들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아나니 다들까 전화로 챙겨주시고 성경 공부인 구도자 커피브레이크에 초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너무 멀었고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지고 갈까 말까 망설이는 저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구도자 커피브레이크 첫 모임에 저는 목발을 잡고 참석했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아준 조원 자매님들과 인도자님의 배려가 새삼 잊고 지냈던 따뜻함으로 다가왔고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날 저의 이기적인 기도와 열정만 가득했던 신앙생활이 반성되었고 집으로 돌아온 배고픈 탕자처럼 허기를 채워 갔습니다. 특히 디도서 말씀은 교회를 안 나온 시간이 꽤 길어서 죄책감도 들고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은 저에게 다 용서해 주실 거란 믿음을 주었고 저를 설레게도 했습니다. 교회가 좀 멀기는 해도 교회에 나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다시 교회에 다니면 이제는 저 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2024.
06

아기학교 간증

04

1. 이지연E 성도 (E서초공동체)
2. 김진주A 성도 (우면공동체)
3. 김진희C 선생님 (우면공동체)



아기학교를 통해 사랑의 예수님을 배워가요

이지연E 성도 (E서초공동체)



코로나가 한참이던 때에 태어난 지혜는 자연스럽게 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교회 영아부를 다니며 예수님은 지혜 마음속에 있다

고 고백하는 아이로 잘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중 영아부를 통해 아기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혜는 지난 가을에 이어 올해 봄에 두 번째 아기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첫 아기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가정 보육을 하다 보니 늘 혼자 노는 것이 익숙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도 어색해 어찌할 바를 몰랐던 지혜는 두 번째 아기학교를 다니면서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엄마, 나 오늘 아기학교 가?’라고 물으며 날마다 아기학교를 기다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주제로 한 이번 봄 학기 아기학교에서 지혜는 감사하게도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축하해 주시는지를 경험하고는 꽃가루를 온 집에 뿌리며 작은 일에도 축하해 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아이가 되었고, 지붕을 뚫고 중풍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친구들을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나서는 엄마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내가 도와줄게요’하며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

을 통해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 경험하고는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를 끌어안고 뽀뽀해 주며 힘을 주는 딸이 되었으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을 통해 사랑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 배우고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며 아빠, 엄마에게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민 도시락을 축하하시고 함께 나누어 먹었을 때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에 대해 배우고는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다. 함께 그네 타니까 더 재미있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혼자 하는 것에 대한 편안함이 아닌 함께 하는 기쁨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엄마 우리 기도할까?’라며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께 기도하자고 말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기학교를 통해 사랑의 예수님에 대해 배우며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고 변화된 지혜는 이제 아기학교에 갈 때면 ‘엄마, 아기학교에 가면 예수님이 있어요.’하며 나는 아기학교가 너무 좋아요.’라고 말한답니다. 아기학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헌신해 주신 아기학교 모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아이들이 아기학교를 통해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아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아기학교

김진주A 성도 (우면공동체)



추운 겨울 끝자락에 꽃 봉오리가 터지듯 드디어 찢히고 찾아온 아름다운 봄 학기 아기 학교가 기대와 설렘 속에 시작했던 것이 엇그제 같습니다.

벌써 종강을 마추는 것을 보며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짧은 시간이나마 아기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쁜 찬양과 놀이로 아이와 함께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민근이를 둘째임에도 어렵게 임신을 하였던 터라 민근이는 임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기도를 받으며 특새의 은혜를 누리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제가 절망하고 낙담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주신 아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양육하여야 할지가 엄마인 저에게는 지금도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임을 알고 누리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포부는 거대하지만 정작 부족하고 연약한 엄마인 저에게 아기학교는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든든한 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매 학기 개강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의 사랑과 노력이 매주 준비해 주신 것을 볼 때에 고스란히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송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신 사랑으로 아기학교에서 아이와 함께하며 매 순간 기쁨으로 시간을 보낸 사이 아이는 또 그새 어느덧 훌쩍 커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하루 쉬고 엄마 품에 안겨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고 다양한 활동들로 하나님 나라를 놀이로 알아간 시간들이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인 저에게도 만나와 같은 삶의 양분이 되고 예배가 되어 아이와 함께 더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기학교에서 받은 사랑과 말씀으로 심긴 복음의 씨앗이 아기학교 친구들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아이들을 통해 민들레 씨앗처럼 널리 널리 퍼져서 결국 밎지 않는 친구들과 그 가정에 온전히 심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담당 장로님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당장 눈에 거뒀지는 사역이 아니다 보니 가끔은 지치실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들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아기학교

김진희C 선생님 (우면공동체)



“안녕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 선생님,
안녕 안녕 안녕 예수님,
사랑 사랑 사랑해요,
축복 축복 축복해요”
반짝이는 눈으로 귀여운
몸짓으로 찬양을

시작으로 아기학교 친구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매주 목요일은 저에게 기대와 감사와 축복입니다. 아기학교 오는 친구들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친구들, 집에서 1시간 이상 먼 거리에서 오는 친구들, 직장 다니시며 매주 목요일 아기학교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오시는 어머니들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머니들의 헌신이 있음을 알기에 아기학교에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기학교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은 순장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순장님께서서는 전도의 목적으로 아기학교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손길이 부족하다는 말에 아기학교에서 섬기게 되었고 부족함이 많지만 부족함마저도 채우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신 어머니들의 차가운 시선과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에서 잠시 힘들고 만나는 시간이 두렵기도 하며 전도의 길은 힘들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주 한 주 달라지시는 어머니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며 따뜻하게 대해 주

시는 어머님들과 아가들을 보며 두려움이 기쁨이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님들과 아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심에 변화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에서 남편의 반대로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아가를 믿음의 아이로 키우기 위해 목요일 아기학교 오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보이셨던 어머님을 떠올려 봅니다.

새로운 교회 아기학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꼭 아기학교에서 만나길 기대합니다. 2024년 아기학교 봄학기에 함께한 아기학교 친구들과 가정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
06

에버그린 스쿨 이름 삼행시

05

에버그린 스쿨에서 진행되었던 특강 '시는 노년기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라는 김기중 장로의 강의를 듣고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 8명의 시를 선정하여 소개합니다.



박 : 박색이란 남편 지청구에
 혜 : 혜안 깊은 나를 선택한
 그대 속마음을 아니
 숙 : 숙명처럼 부부의 연을 맺어
 어언 48년, 주님 사랑 닮아가며
 무덤까지 갑시다!

박혜숙A 성도(우면공동체)



이 : 이라는 성을 가진 내 이름 첫 자
 긴 세월 내려온 무게감을 느낀다
 정 : 정겨운 마음으로 정감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
 길 : 우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기 원한다

이정길 성도 (강북공동체)



윤 : 윤기나며 반짝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명 : 명기와 같이 아름다운 소리이고 싶습니다
 애 : 애기와 같이 밝고 사랑스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윤명애 집사 (C강남공동체)



이 : 이렇게 좋은 봄날에
 순 : 순수하고 어여쁜 꽃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날
 덕 : 덕망 있는 믿음의 복음 전하는 자이길

이순덕A 성도 (우면공동체)

66



이 :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어서 더욱 좋습니다

연 : 연하고 부드러운 손 같은 예수님

때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시라 더욱 사랑합니다

희 : 희망적 말씀과 늘 복된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더욱 많이 기뻐합니다

축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연희F 성도(S강남공동체)



최 :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영 :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된 순간

숙 : 삶의 숙제를 풀게 되었네

최영숙C 성도 (W강남공동체)



이 : 이런 일 저런 일 많고 많은

시간을 헤매이다가

영 : 영 풀리지 않는 목마름을 달래고파

주님 찾아 왔습니다

자 :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비로소 평안을 누립니다

이영자B 집사 (C강남공동체)



이 : 이른 아침 새벽에 주를 향해 기도로 시작한다

동 : 동녘에 여명이 트이면 옛 꿈에 나부끼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뚝뚝한 백세를 향하여 행복한 소명에 감사하자

형 : 형통하든지 아니 하든지 꿈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되게 하소서

이동형 성도 (우면공동체)

2024.
06

2024 여름말씀부흥집회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부으소서



강사
황덕영 목사
새중앙교회 담임

06.07(금) 오후 8시, 06.08(토) 오후 7시 | 본당

[서틀 운행시간 안내]

- **노선** : 양재역, 선바위역
- **운행시간** : **금요일** 오후 6시 30분-7시 30분 수시 운행 / **토요일** 오후 5시 30분-6시 30분 수시 운행
* 출차는 예배 마치고 10분 후에 있습니다.

[차일드케어 안내]

- 예배 30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대상** : 4-11세(4학년)
- **장소** : 4-7세 영아부실(2층) 1-4학년 새로운홀2(6층)
* 4세 미만 자녀는 유아부실(1층)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 **문의** : 이사무엘 목사, 카톡ID : soerounchurch
* 본당 입장은 예배 1시간 전부터 가능합니다.

06.07(금)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부으소서 I (사도행전 2:1-4)

06.08(토)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부으소서 II (사도행전 27:20-26)

07

금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부으소서 I

행 2:1-4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Suddenly a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 came from heaven and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They saw what seemed to be tongues of fire that separated and came to rest on each of them.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enabled them.



황덕영 목사
새중앙교회 담임

08

토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부으소서 II

행 27:20-26



황덕영 목사
새중앙교회 담임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량이 그대로 있을 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When neither sun nor stars appeared for many days and the storm continued raging, we finally gave up all hope of being saved.

21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을 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 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After the men had gone a long time without food, Paul stood up before them and said: 'Men, you should have taken my advice not to sail from Crete; then you would have spared yourselves this damage and loss.

22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But now I urge you to keep up your courage, because not one of you will be lost; only the ship will be destroyed.

23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Last night an angel of the God whose I am and whom I serve stood beside me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and said,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trial before Caesar; and God has graciously given you the lives of all who sail with you.'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So keep up your courage, men, for I have faith in God that it will happen just as he told me.

26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Nevertheless, we must run aground on some island.'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미로6길 56, 삼준빌딩 3층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ww.saeroun.net
